

문경민 장편소설 『브릿지』

함께 읽기 수업구성안



책 소개

군색한 집안 형편, 애매한 재능. 눈앞의 입시 경쟁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아득하기만 어린 첼리스트, 서인혜. 주인공 서인혜는 예고에 들어오기까지 남모를 고통을 감내했다. 가족과 친구를 멀리하고 가혹한 레슨 선생님 아래에서 위경련을 일으킬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며 연습에 매진했다. 그런 노력 끝에 예고에 진학했지만, 막상 와 보니 과연 자신에게 재능이 충분한 것인지 이대로 계속 달려가는 게 옳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힘 있게 활을 잡으려 매일 운동을 하고 ‘연습쟁이’ 소리를 들으며 악기를 손에서 놓지 않지만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는 많고, 첼로에 드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스럽다. 군색한 집안 형편에도 부모님은 기꺼이 지원하겠노라 늘 격려하지만, 그 마음과 비용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자신이 뛰어난 연주자인지 모르겠다.

흔들리던 와중에 마음의 버팀목이었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인혜는 깊은 상심에 빠져든다. 설상 가상으로 중학교 때 악연을 맺은 엄 선생님이 실기시험 심사 위원으로 등장하고, 의혹 가득한 실기시험이 끝난 후 학교에는 심사 조작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다. 엄 선생님을 둘러싼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살얼음 판 같던 인혜의 일상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살다 보면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꿈을 향해 달려가라는 응원이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고, 애써 쌓아 올린 노력이 현실의 벽을 마주하는 순간들. 『브릿지』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십 대가 맞닥뜨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이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원망하고, 삶의 작은 문턱에 좌절하는 날들이 이어져도 자기 자신을 대신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혼란과 슬픔 속에서 인혜는 과연 어떤 선택을,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

‘브릿지(bridge)’는 첼로의 현과 몸통을 연결하는 작은 나뭇조각이다. 활로 현을 그으면 브릿지가 네 줄을 굳건히 떠받치며 현의 진동을 몸통으로 전달한다. 휘어지며 버티는 브릿지처럼, 인혜는 꿈의 무게를 버티어 낼 수 있을까?

예술이 선사하는 순수한 기쁨을 맛본 예고 아이들의 꿈과 열정, 그 크기에 비례하는 좌절과 슬픔에 주목한 『브릿지』는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꿈의 무게를 감내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문경민 작가는 이 작품에서 슬픔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열정을 비웃는 세상에서 감히 헌신을 말한다. 부서진 마음을 다독여 아물게 하는 작가의 목소리는 지금 잠시 주저앉았더라도 곧 다시 일어나 자신을 위한 최선을 발견해 낼 오늘의 청소년들에 들려주는 온온한 믿음과 응원이 될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중)

학습 목표

- 주인공 인혜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살펴봄, ‘꿈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 경쟁과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좋아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일에 몰입하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토의해 봅시다.
- 상실과 슬픔을 건너가며 성장하는 인혜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픔을 통해 성장했던 여러분의 경험에 대하여 성찰해 봅시다.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활동 1] 『브릿지』의 표지를 보고, ‘꿈’을 열쇳말로 하여 주인공의 사연을 상상해 보기 [활동 2]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기, 꿈을 찾고 이루는 과정에서 겪어나 겪게 될 어려움 혹은 얻게 될 보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기 [활동 3] ‘꿈과 진로’에 대한 기사를 읽고 토의해 보기	모둠 활동
2	읽기 중	[활동 1] 인혜네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 보기 [활동 2] 인혜에게 첼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활동 3] 실기시험을 중심으로 인혜의 고민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	모둠 활동
3	읽기 중	[활동 4] 엄정현 선생님과 정단아 선생님은 각각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인혜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지 토의해 보기 [활동 5] 인혜의 할머니는 어떠한 분이였는지 소설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 파악해 보고, 할머니의 캐리커처를 그려 보기 [활동 6] 인혜와 연수, 대호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이 펼쳐갈 음악 세계와 삶에 대해 추측해 보기	모둠 활동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모둠 활동
4	읽기 후	[활동 1] 인혜네 가족 네 명이 ‘서로에게 못다 한 말’은 어떤 것일지 써 보기 [활동 2] 인혜가 상실과 슬픔을 건너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소감 나누기 [활동 3] 이찬예고의 부조리한 선후배 문화에 대한 대호의 ‘투쟁’을 평가해 보고, 3학년을 앞둔 대호의 새로운 대자보 내용을 추측하여 써 보기 [활동 4] 첼로에서 ‘브릿지’의 역할을 찾아보고, 소설 제목 ‘브릿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토의해 보기	개별 활동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모둠 활동
5~7	심화 활동	영화 <위플래쉬> 감상하기	모둠 활동

1차시 - 읽기 전 활동

1. 『브릿지』의 표지 그림을 보고, ‘꿈’을 열쇳말로 하여 주인공에게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2.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을 찾고 이루는 과정에서 겪었거나 겪게 될 어려움, 얻게 될 보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1차시 - 읽기 전 활동

3.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글쓴이에게 ‘꿈을 꾸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찾아봅시다. 또 여러분에게 ‘꿈을 꾸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신문 기사)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송혜교(홈스쿨링생활백서 대표) 2025.01.20

강단에 오를 때마다 듣는 질문이 있다. “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들으면 늘 웃음이 난다. 중학교를 자퇴할 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 목표는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작가가 되는 것. 그저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만이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기가 무섭게 전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 작가가 되기를 꿈꾼 적 있었냐는 듯이, 청소년기 내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골몰하며 시간을 보냈다. 정부 기관과 미팅하고, 수백 개의 연구 자료를 읽고, 기획안을 끝도 없이 써냈다.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할 무렵, 나는 하루에 두 시간으로 잠을 줄여가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체를 만들었다. 기획, 디자인, 마케팅까지 비영리활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닦치는 대로 독학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내 앞에도 많은 수식어가 쌓였다.

그 무렵 심리학에 흥미가 생겼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내 진로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미 사회에 자리를 잡았으니 이대로만 나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어 보였다.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후보도, 지자체장도 내게 연락을 해왔다. 비영리활동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었다. 대학원에 진학해 학자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도 여럿 받았다. 마치 돌잡이 아기라도 된 것처럼, 온갖 반짝이는 것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부와 지식, 명예, 권력 같은 것들.

그 앞에 서서 앞날을 고민하던 나는, 문득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경로를 완전히 이탈했다는 걸. 내가 되고 싶은 건 저명한 학자도, 강력한 정치인도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작가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나 멀리 돌아왔더니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다.

문학계에는 어떤 인연도, 경력도, 내공도 없었다. 글을 어떻게 투고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글을 쓰는 것뿐이었다. 읽는 만큼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독서 했다. 여행을 다니기 위해 필사적으로 영어를 공부했다. 주 6일, 매일 10시간씩 글을 썼다. 그리고 학교를 떠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나는 작가가 되었다. 우습게도 작가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게 내 진정한 꿈이 아니었다는 걸. 그러니 꿈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되묻는다. 본인이 정의하는 꿈은 무엇이냐고.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꿈꿀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다음 장에 이어서)

1차시 - 읽기 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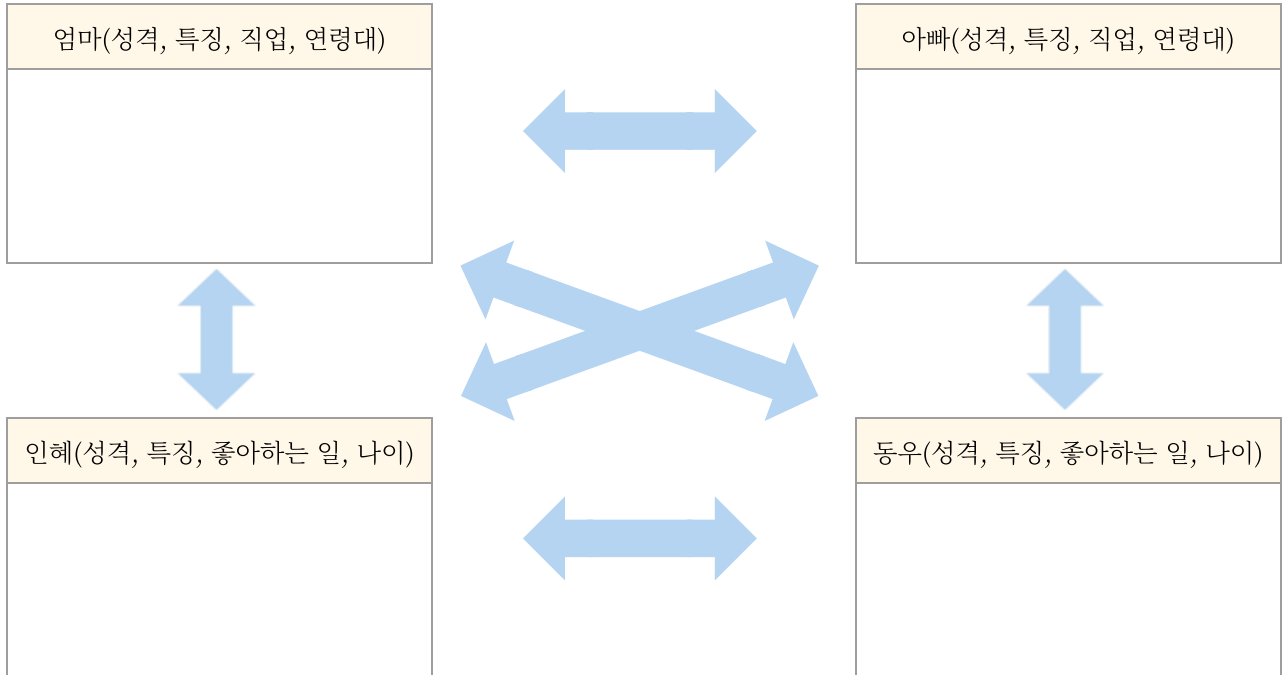
나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오직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학부생이 되었다. 지금은 방학을 맞아 지구 반대편에서 여행기를 집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 재산을 털어 여행을 다닐 것이다.

내 꿈은 오롯이 나만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후회 없는 선택이나 최고의 선택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좋은 길만을 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늘 자신의 선택을 믿는 사람이 있을 뿐. 그러니 꿈을 찾는 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다. 반짝이는 선택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때로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나의 생각 쓰기

2차시 - 읽기 중 활동

1. 인혜네 네 식구(인혜, 동우, 엄마, 아빠)에 대한 정보를 소설 속에서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성격이나 특징, 하는 일, 나이, 서로 간의 친밀도 등) 화살표에는 각 인물 간의 친밀도를 작성해 보아요.



2. 인혜에게 첼로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말해 봅시다.

- 인혜가 첼로를 시작하게 된 동기

- 첼로가 인혜에게 준 기쁨과 행복

- 첼로로 인해 인혜가 느낀 괴로움과 좌절

- ()에 들어갈 말을 비유적으로 써 봅시다. (예시: 아이스크림, 연습의 고통은 차갑고 시린 순간을 겪게 하지만 막상 연주할 때에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물해주기 때문에 등)

인혜에게 첼로란 ()이었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2차시 - 읽기 중 활동

3. 인혜의 실기시험을 둘러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실기시험의 결과	
연주 당시 인혜의 심리	
연주 뒤 인혜의 만족도	
결과에 대한 인혜 부모님의 반응	
시험 후 인혜가 품게 된 질문	
실기시험에 대한 소문	
소문을 듣고 인혜가 품게 된 의심	

3차시 - 읽기 중 활동

4. 엄정현 선생님과 정단아 선생님은 각각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인혜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 말해 봅시다.

선생님의 외모나 인상, 별명, 특징, 교육 방식, 인혜에게 미친 영향, 인혜가 교육받은 기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교육받은 장소는 어디의 어떤 곳이었는지 등을 비교해 봅시다.(마인드맵 방식으로 표시하기)

 엄정현 선생님	 정단아 선생님
--	--

5. 인혜의 할머니는 어떠한 분이였는지 소설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 정리해 보고, 할머니의 캐리커처를 그려 봅시다.

인혜가 알고 있던 할머니의 이력	
할머니에 대한 조문객들의 평가	
대호에게 들은 할머니의 삶	
엄정현 선생님에게 들은 할머니의 삶	
6학년 때 인터뷰하면서 들은 할머니의 어릴 적 모습, 할머니의 꿈	
연수에게 들은 할머니의 삶	

3차시 - 읽기 중 활동

할머니의 캐리커처

3차시 - 읽기 중 활동

6. ‘첼리스트 3’의 구성원인 인혜와 연수, 대호는 각각 어떤 친구들이며 그들의 음악과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적어 봅시다.

	특징, 성격, 가정 환경, 현재 몰입하고 있는 악기나 음악 분야	예상되는 진로나 미래의 삶
인혜		
연수		
대호		

4차시 - 읽기 후 활동

1. 인혜네 가족 중의 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서로에게 못다 한 말’을 담은 편지글을 써 봅시다. (예: 동우가 아빠에게 등)

4차시 - 읽기 후 활동

- 인혜는 할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채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 인혜가 어떻게 자신의 상실과 슬픔을 건너갈 수 있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이찬예고의 부조리한 선후배 문화에 대한 대호의 ‘투쟁’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 3학년을 앞둔 대호가 쓴 대자보는 어떤 내용이었을지 추측하여 써 봅시다.

4차시 - 읽기 후 활동

4. ‘브릿지’에 대한 아래 글을 참고로 하여, 소설 제목 ‘브릿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그게 뭔지 궁금해?”

인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나뭇조각을 집어 들고 말을 이었다.

“브릿지라는 거야. 이건 첼로에 쓰이는 놈이지.”

“브릿지요?”

“현의 떨림을 울림통으로 전해주는 부품이란다. 조그맣기는 한데 브릿지가 시원찮으면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인혜에게 브릿지를 건네주었다. 인혜는 브릿지를 손으로 쓸어 보다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거 휘어졌어요.”

브릿지는 기울어진 것처럼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다. 할머니도 신기한 장난감을 보듯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보통 그렇게까지 휘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 아이들 교육용 첼로에 쓰이던 놈이란다. 관리가 잘 안 된 거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첼로 현의 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 힘을 버티는 게 버거웠을 겁니다.”

구부러진 곳을 쓰다듬는데 가슴이 아릿했다. 안타깝기도 했고 대견하기도 했다.

(본문 29-30쪽)

엄정현 선생님과 레슨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맑은 날, 망연히 검은 차창 밖을 내다보다가 인혜는 운전석의 할머니를 향해 물었다.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피폐한 마음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이었다.

“어렵지.”

룸 미러에 비친 할머니의 눈빛은 고요했다.

“딱하고, 한심하고…… 장하긴 해. 그렇다고 사랑스러운지는 모르겠네.”

인혜와 할머니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춘 할머니는 말을 이어 갔다.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한다고. 사랑스러워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사랑은 의지이고 결심이기도 하다고.

인혜는 거리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브릿지를 꺼냈다. 휘어지기까지 버텨 낸 브릿지의 굽은 면을 엄지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았다. 아랫면에는 오래전 할머니가 적어준 문구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인혜가 사랑하며 살아가길

(본문 190-191쪽)

5~7차시 - (심화 활동) 영화 <위플래쉬> 함께 보기



영화 <위플래쉬> 포스터 (네이버 영화)

영화 <위플래쉬> (2015, 데이미언 셔젤)

뉴욕의 명문 셰이퍼 음악학교에서 최고의 스튜디오 밴드에 들어가게 된 신입생 '앤드류'.

최고의 지휘자이지만 동시에 최악의 폭군인 '플레처' 교수는 폭언과 학대로 '앤드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드럼 주위로 뚝뚝 떨어지는 피, 빠르게 달리는 선율 뒤로 아득해지는 의식, 그 순간, 드럼에 대한 앤드류의 집착과 광기가 폭발한다. 최고의 연주를 위한 완벽한 스윙이 시작된다!

- 출처: 씨네21

1. <위플래쉬>의 플레처 교수와 『브릿지』의 엄정현 선생님(소설 전반부에 제시된 모습)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지 말해 봅시다. 그 두 사람과 인해 할머니인 김숙희 씨는 음악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봅시다.

2. <위플래쉬>에서 앤드류가 플레처 교수와 화해하는 과정과 『브릿지』에서 인혜가 엄정현 선생님과 화해하는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봅시다.

5~7차시 - (심화 활동) 영화 <위플래쉬> 함께 보기

3. <위플래쉬>의 앤드류와 『브릿지』의 인혜가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찾았나요? 여러분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네이먼과 인혜 두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써 보세요.

4. 예술이나 체육,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쫓고 꿈의 무게를 버티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나 소설, 연극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